

중남미

◆ 중남미 주요국의 최근 석유산업 동향

지난해 중남미의 석유산업은 세계경제 침체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금년 들어 세계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국제유가도 소폭 상승하는 등 대외여건이 개선되었으나, 중남미 국영 석유회사들은 오히려 금년도 수익 전망과 석유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규모를 낮춰 잡고 있다. 이는 최근의 유가상승이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금년 내내 상승세가 이어지리라는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남미 산유국들의 국내정치 상황도 석유산업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중남미 최대의 석유 수출국인 베네수엘라는 국영 석유회사인 PDVSA 노조의 파업이 대통령의 퇴진과

복귀로 이어지는 등 정국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중남미 최대 산유국인 멕시코도 석유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혁 추진이 야당이 다수인 의회의 반발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금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콜롬비아는 반군 단체와의 내전이 격화되고 있고, 브라질도 노동당의 톨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멕시코

중남미 최대 산유국인 멕시코의 금년 석유생산량 목표는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327만 b/d이다. 석유 증산 목표는 중질유를 생산하는 칸타렐(Cantarell) 유전의 생산 호조에 힘입어 무난히 달성

〈표〉 중남미 주요 산유국 석유 통계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생산량 ¹⁾ (천 b/d)	3,148	2,597	1,516	746	568	402
매장량 ²⁾ (백만 b)	28,300	76,900	8,100	3,100	2,600	2,100
수출량 ³⁾ (천 b/d)	1,191	2,077	-623	288	312	281

주: 1. 2002년 추정량
 2. 2000년 기준
 3. 생산량 - 국내소비량
 자료: EIU, Business Latin America.

될 것으로 전망되나, 석유 수출은 OPEC의 유가정책 지지를 위해 지난해 171만 b/d 보다 6.4% 적은 160만 b/d로 억제될 전망이다. 한편, 1999년 초 247억 배럴에 이르던 추정 매장량이 금년 초에는 224억 배럴로 9% 감소하는 등 석유산업의 장기 전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질유 생산비중 증가 목표도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의 석유산업 현대화 계획도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멕시코 정부가 국영 석유회사인 PEMEX를 정부의 주요 재정수입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PEMEX의 신규 투자 확대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멕시코 의회는 금년 PEMEX의 상류(upstream) 부문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증가한 105억 달러를 배정했으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에너지법은 기각시킬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멕시코는 석유 생산능력 유지를 위해 외국인투자자들의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의회가 에너지 시장 개방의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 대폭적인 신규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4월 초 국영 석유회사 PDVSA의 경영진 선임 문제로 야기된 석유노조의 파업이 노총(CTV)의 총파업으로 확산되고 급기야는 차베스 대통령의 퇴진과 복귀라는 정국불안으로 이어졌다. 차베스 대통령은 권좌에 복귀한 이후 전임

에너지장관이자 OPEC 사무총장인 알리 로드리게스를 PDVSA의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고 국내 반대세력과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으나, 정국불안과 OPEC 감산 합의로 인해 석유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크게 감소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이 출범한 1999년 2월 이전에는 연평균 원유 생산량이 340만 b/d에 달했으나 현재는 이보다 90만 b/d이 적은 250만 b/d를 기록하고 있다. PDVSA의 생산능력도 차베스 집권 이전인 1998년의 330만 b/d에서 탐사·개발 투자의 감소로 인해 2002년 현재 280만 b/d로 15.2% 감소하였다. PDVSA의 생산능력 유지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를 포함한 민간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베네수엘라 정부는 오히려 작년 11월 로열티를 16.67%에서 30%로 인상하고 PDVSA의 상류 부문 독점을 더욱 강화함에 따라 당분간 민간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라질

브라질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 추진으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나, 석유산업은 여전히 국영 석유회사인 Petrobras가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Royal Dutch/Shell社가 산토스 항구 유역에서 추정 매장량 3~5억 배럴의 유전을 발견하는 등 브라질 석유산업은 아직 개발의 여지가 많아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Petrobras는 지난해 해양 석유생

산 설비 폭발사고로 인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향후 5년 이내에 국내 석유생산량을 현재의 150만 b/d에서 190만 b/d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2005년까지 해외 석유생산량을 현재의 30만 b/d에서 70만 b/d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하에 서부 아프리카와 멕시코만 등 해외 광구의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지질학적 측면에서 석유부존 가능성이 높은 퇴적분지 중 25%만이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나머지 미탐사 지역에서의 석유 발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는 현재 BP, Shell 등 5대 메이저 포함 약 34개의 석유회사가 진출하여 석유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폐소화의 평가절하 등 금융위기 심화로 향후 경제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석유회사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석유생산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2002년 3월부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에 각각 20%와 5%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석유회사들의 경영실적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경제위기에 따른 석유수요 감소와 신규투자 감소로 석유생산량이 2006년에는 50만 b/d 수준으로 감소하여, 아르헨티나는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스페인 Repsol-YPF의 카파초스(Capachos) 유전 발견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콜롬비아의 컨소시엄인 Hocol의 라 오차(La Hocha) 유전 발견으로 확인 매장량이 26억 배럴로 증가하는 등 석유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석유생산량은 최대 유전인 쿠시아나(Cusiana) 유전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82만 b/d 수준이었던 석유생산량은 2000년과 2001년에는 각각 69만 b/d와 63만 b/d로 감소하였으며, 금년 석유생산량은 57만 b/d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통해 석유생산량 증대를 꾀하고 있으나, 게릴라 단체의 송유관 파괴¹⁾ 등 치안불안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다. 파스트라나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게릴라 단체와의 평화협정 체결이 실패함에 따라 게릴라 단체의 석유시설에 대한 테러가 다시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콜롬비아의 석유산업은 큰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콰도르

2001년 말 현재 에콰도르의 확인 매장량은 21억 배럴이며, 석유생산량은 40만

1) 미국 Occidental Petroleum이 운영하고 있는 카노-리몬(Cano-Limon) 송유관은 게릴라 단체로부터 지난해에만 170여 차례의 공격을 받았으며, 금년에도 3월까지 16차례의 공격을 받았음.

b/d 수준으로 이중 26.6만 b/d를 수출하고 있다. 한편, 최대 수송능력 51.8 b/d의 중질유 송유관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2003년에는 에콰도르의 석유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국영 석유회사 Petroecuador는 석유생산 증대를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에콰도르 의회는 2001년 초 석유 탐사·개발을 위한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기각했고, 헌법재판소는 2000년 12월 민간기업에게 5개 유전의 운영권을 허가하는 정부 개혁안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유전 지역 거주 원주민들과 국내외 환경보호주의자들의 송유관 건설공사 반대 및 공사구간 변경 요구 시위 등으로 석유 산업에 대한 신규투자과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金永錫】